

게리 예이츠 박사, 예레미야, 강의 18, 예레미야 23, 거짓 선지자들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거짓선지자 18회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유배의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주전 605년 예레미야 36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미 20년 넘게 섬기던 중에 유다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는 심판의 예언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서기관을 두라 명하셨다., 바룩, 성전에서 읽으세요. 그 두루마리는 예레미야 25장에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20년 동안 사역한 선집으로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유다에 대한 기소의 일부는 유다가 정말로 나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교는 그들의 지도자들, 즉 시민 지도자들, 왕들, 왕들의 관리들, 군사 지도자들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로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 같은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좌 초반에는 예레미야 22장을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살펴보았는데, 예레미야와 유다 계통의 마지막 왕들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유다의 나쁜 왕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 609년부터 597년까지 통치했던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화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는 예레미야의 궁극적인 적대자입니다.

그리고 22장 13절에 불의와 불의로 자기 집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이 왕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왕이 죽을 때, 예레미야 22장 18절은 그가 죽을 때에 그를 위하여 화의 말씀도 없고 화의

말이나 애도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백성은 기뻐서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죽음과 멸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본문 23장 1절은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 목장의 양들을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다시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들은 목자로 묘사되는데, 이는 리더십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이미지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돌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양떼를 돌보고, 그들에게 공급하고, 양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의 문제는 양 떼를 보호하고 공급하기는커녕 오히려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왕들은 그것을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여호야김과 유다의 마지막 네 왕과 같은 사악한 통치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빈약한 지도력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리더십 문제의 일부는 또한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이 그의 율법에 더하여 그의 백성에게 전달하시는 방법이라는 그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9절부터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속에서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린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말씀과 그의 거룩한 말씀을 인하여 술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 선지자이지 주님이 아니니라. 또 저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음행하는 자들이 가득하며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풀이 말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악하고 그들의 힘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모두 불경건한 자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2장 서두에서 선지자는 유다가 불충실한 아내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매춘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무 아래와 모든 푸른 언덕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남편으로서 주님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간음에 대한 생각이 여기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특히 유다의 선지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이러한 불성실로 인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을 때 평화를 약속함으로써 이러한 거짓 신들의 숭배를 조장해 왔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 간음을 장려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크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둠 속의 미끄러운 길과 같아서 그들이 쫓겨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벌 받을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유다 자손에게 임할 심판 곧 재앙을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도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과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13-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배도한 북쪽 왕국의 선지자들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유다 백성은 자신들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들만큼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서 불미스러운 일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거나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배교와 배도에 대한 책임은 그 땅의 선지자들에게 있습니다. 유다에 있는 선지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가증한 일을 보았노라 그들은 간음을 범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굳게 하여 누구든지 그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 모두가 내 앞에서 소돔과 같고 그 거민이 고모라와 같게 되었느니라. 너희는 배교한 북쪽 왕국보다 나을 것이 없느니라. 사실, 여러분의 선지자들도 그만큼 또는 그보다 더 많은 간음을 조장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왕국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선지자들의 사역과 메시지로 인해 구약의 악의 궁극적인 패러다임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었습니다. 16-18절. 이제 그들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만든 구체적인 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만든 메시지의 본질이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16-18절은 우리에게 그 점을 반영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에게 헛된 소망을 가득히 채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자기 마음으로 말한 환상을 말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항상 이르기를 너희가 잘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실제로는 재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선지자들이 행하고 말한 몇 가지 일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그들 자신의 말, 그들 자신의 비전, 그들 자신의 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종종 이것이 신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메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참 선지자는 사람의 마음이나 뜻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대로 말하는 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고 있었고, 단지 자신들의 꿈만 제시하고 있었고, 사람들을 헛된 희망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추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그들을 격려한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을 구실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화, 평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요새이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거기 계십니다. 이들은 여호와와의 전이라, 여호와와의 전이라, 여호와와의 전이라 말하는 선지자들이니라 예레미야도 성전 설교 중에 서서 이르기를 이 거짓된 말을 믿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라 하고 말한 선지자들은 이 사람들이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반드시 자손을 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의 메시지를 평화가 없을 때에도 평화, 평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안전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은 사람들로 부터 변화하려는 진정한 동기를 빼앗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아마도 구약의 다른 어떤 책보다, 확실히 다른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참된 예언과 거짓 예언을 둘러싼 투쟁과 갈등을 반영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거짓 평화의 메시지와 거짓 선지자들과 교류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의 이야기에서 예레미야는 실제로 그 땅에 있는 하나냐나 포로들 사이에서 바벨론에 있는 제사장인 스마야와 같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와 이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거짓 희망은 우리가 책을 읽어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1장부터 25장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고발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뤄진 주요 문제 중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과 평화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그것이 어떻게 유다 백성에게 부패한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약에 대해 예레미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내산 언약, 즉 모세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순종이나 불순종에 따라 그들을 벌하시거나 보상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나 시온에 관해 하신 약속만큼 그의 신학에 중요합니다.

그러한 언약적 이해로 인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또한 다윗의 자손들에게도 의무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의 언약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하실 때마다 그 약속에는 항상 언약의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언약에 대해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약속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무시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추정적인 이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 시온의 불가침성에 대한 잘못된 확신에 기여한 사람들임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시온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것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항상 그것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허한 평화의 확신을 약속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예레미야서에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4장 9절과 10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왕들과 고관들이 모두 용기를 잃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놀랄 것이다. 내가 이르되 아 주 여호와여 주께서 과연 이 백성과 예루살렘이 이르기를 왕은 평안하시리이다 하는 것을 완전히 속이셨도다 칼이 그들의 생명에 이르렀도다 관참은? 이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아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생각하였고 실제로는 칼에 삼켜지게 되었느니라.

심판과 파괴적인 멸망이 곧 그들에게 임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흥미로운 점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이것을 믿도록 속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것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함으로써 그들의 불신에 대해 벌을 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믿게 하심으로써 참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에 대한 불신앙을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른 세션과 다른 섹션에서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종종 불신을 불신으로 처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들은 몇 번이고 이스라엘에 와서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셔서 그들이 이 헛된 메시지를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볼 때, 모든 것이 그들에게 평화로울 것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속여서 그것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믿음에 내버려두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불신을 더 큰 불신과 영적 눈멀음으로 처벌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 절에 장차 불법의 사람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미혹을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하여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을 믿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불신앙을 벌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경험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하나님에 관한 진리와 그분의 능력의 실재,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피조물 그 자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적어도 하나님의 속성은 창조물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창조주가 있는데 인류는 태초부터 그 지식을 거부하고 굽히고 비틀어 우상 숭배로 변질시켜 왔습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그들을 그들의 거짓된 생각에 내어 버려두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다가 어리석게 됩니다. 유다는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율법에 정해 놓으신 길이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전파한 길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지혜로운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믿게 되었습니다. 6장 13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부당한 이득을 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모두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치료하여 이르기를 평강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강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들의 메시지의 모토입니다. 평화, 평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의 모습은 마치 종양에 아스피린 두 개를 처방하는 의사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의 상처를 가볍게 대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신학적 구실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부끄러워하였느냐”고 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붉히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넘어지는 자들 중에 떨어지리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자, 여기서는 분명합니다. 이런 불신앙을 강요하신 분은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된 평화 제안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직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방식을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메시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것에 속게 될 것입니다.

8장 8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가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나 보라, 서기관들의 거짓말하는 붓이 그것을 거짓으로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그 말씀의 메시지를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실제로 텍스트를 변경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화시킨 것은 그 메시지의 힘과 의미와 강조였습니다. 본문은 그들의 언약적 책임과 언약적 축복을 모두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유일한 것이 약속뿐이라는 메시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내가 그들의 지혜를 남에게 주고 그들의 토지를 이기는 자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또 선지자들이 11절에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이르기를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다 함이니라. '아, 다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의사처럼 아스피린 두 알을 드세요. 그들의 생명을 갇아먹고 있는 썩은 내부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정면으로 맞서며 초기에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결국 이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은 쓰라린 실망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거짓된 평화의 약속은 결국 공허한 망상으로 판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장 19절에서 평화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믿고 이러한 진술을 하는 사람들의 실망을 봅니다. 주님은 시온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왕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냐? 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요새입니다. 당신은 괜찮아.

당신은 보살핌을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중에 있을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조각한 신상과 이방 우상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느냐? 수확이 끝났습니다.

여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십일시에 개입하여 우리를 구출하시고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의 딸의 상처로 인해 내 마음이 상하였느니라.

나는 애도하고 실망한다. 나를 보살펴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불치병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보러 오면 슬퍼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재앙뿐일 것입니다. 좋아요?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생각나게 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아, 주 하나님여,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며 기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겠다. 괜찮은? 예레미야는 언약의 저주에 대해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선지자들은 너희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예요.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거짓 환상을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다.

쓸모없는 점. 그들은 점성술과 다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선지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그들 자신의 마음의 진실과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망하리라. 괜찮은? 그들은 백성들이 칼과 기근과 언약의 저주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형벌은 범죄에 맞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로 그 심판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 갈등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신실하게 대변하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 사이의 갈등입니다. 단지 공허한 평화의 확신만을 주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갈등은 예레미야서 전체에 걸쳐 전개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들의 신학을 거짓을 뜻하는 히브리어인 셰케르(Sheker)로 묘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복되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23장에 이르러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벌이는 계속되는 전쟁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정심을 느껴야 합니다. 같아? 차이점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내리실 준비를 하고 있는 6세기, 7세기 유다에 살고 계시다면, 한편으로는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손에, 당신에게는 28장에서 우리가 만날 하나님과 같은 평화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며 2년 안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은 그 선지자들 중 누구가 될 것입니까? 믿을 의향이 있나요?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 평화의 메시지를 믿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없이 자신의 백성을 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은 모세 자신으로부터 실제로 확립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표자 또는 원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은 왕정 시대의 최초의 선지자로서 여러 면에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대표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8장에서 여호와께서는 모세 시대에 약속을 주셨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너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관찰은? 그래서 모세 시대에 모세는 일종의 이스라엘 선지자의 원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에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우렛소리와 연기를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당신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자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이 있느니라. 이 구절은 단지 한 명의 선지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집단적으로 일으키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각 세대마다 모세의 일, 곧 하나님께 가서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메시지를 받고 돌아와서 그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하는 일을 할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구절을 들을 때, 아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종말론적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은 그 구절을 그런 식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구절에서는 모든 선지자들을 집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다음에는 여호수아,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는 이 약속의 성취이니라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예레미야가 “아, 주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한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말하는 방법을 모른다. 첫 번째 장에서 예레미야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확증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참된 대변인 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질문은, 참된 선지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장 이하에서 주님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첫째, 진정한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는 다른 신들을 숭배해서는 안 되며,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는 백 퍼센트의 시간에 성취되는 예언을 발표해야 합니다. 좋은 타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한 번이라도 틀렸다면 그는 참된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체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그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다른 신들을 숭배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에 있던 몇몇 선지자들은 그 한 번의 시험으로 인해 무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야훼 숭배와 바알 숭배를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3장의 문제와 실제로 이러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그들이 반드시 자신을 다른 신의 선지자라고 광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의 어려움은 그들이 손을 흔들어 '오, 당신은 참 선지자요, 당신은 거짓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탐지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신을 거짓 선지자로 식별하는 티셔츠를 입지 않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만큼 똑똑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였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것입니다. J. Andrew Dearman은 이러한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중 다수는 때때로 참 선지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역의 어느 시점에서나 생애 동안, 또는 어쩌면 이러한 잘못된 예언을 발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삶과 사역의 어느 시점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는 유효한 사역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를 알기 위한 투쟁이 있습니다. 음, 시험이 있어요. 선지자가 무엇인가를 예측한다면, 그 일은 100%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시험의 문제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이며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2년 안에 위기가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의 기구들이 우리에게 도로 돌려보내질 것이다.

100% 테스트의 문제점은 이러한 이벤트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읽고 예레미야가 이곳의 참 선지자였다는 것을 압니다. 전개되는 역사적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39장과 52장의 기록을 읽어 보십시오. 그들은 예레미야가 정확히 옳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70년 동안 유배생활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시, 차이점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3장에서 이 메시지로 돌아가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그들이 내가 그들을 통해 말하지 않은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러한 것들을 균형 있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참된 선지자입니다. 평화, 평화를 설교하는 이 반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에게 헛된 소망을 가득하게 하여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자기 마음으로 말한 환상을 말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르기를,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보세요, 이것은 단지 그들의 말입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구절이 있으며, 18절에는 참된 선지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매우 강력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 누가 주의 말씀을 보고 듣기 위하여 주의 뜻을 따랐느냐? 아니면 누가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들었습니까? 보십시오, 주님의 권고는 어떤 의미에서 이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왕이시며 천사들의 회의를 주관하시는 천국 내각 회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법령과 결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의 이교 종교에서 신성한 의회는 여러 신들이 함께 모이는 신들의 만남의 장소를 대표했으며, 그들은 법령과 결정을 내리고 때로는 이를 발표하거나 적어도 실행했습니다. 인간의 영역에서. 이스라엘 주변의 고대 문화, 이러한 이교도 문화는 아래의 인간 정부와 같은 위의 신성한 정부를 상상했거나 심지어 그것을 다양한 형태의 정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공의회에는 여러 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 사자들과 그의 뜻을 실행하고 수행하는 자들과 만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주님은 자신의 법령과 결정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권고에 대한 개념을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성경 구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준비하시면서 26절에서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여기에서 삼위일체를 반영하여 그 개념이 구약성서에 명확하게 풀리지 않은 것을 읽고 싶어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그럴듯한 생각은 하나님이 그의 신성한 의회에서 인류를 창조하려는 의도를 발표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선지자가 환상에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보면 그는 큰 왕이시라. 그는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그분 주위에 있는 존재들은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과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성한 회의 중에 누가 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것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보내라 내가 가서 말하리라

그래서 저는 여기 23장 18절에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몇 가지 구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회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결정과 법령을 선포하시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 토론에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구약성경 구절은 욥기 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그리고 그의 신성한 회의에 참여하는 영적인 존재들을 만나고

계시고, 사탄은 그 신성한 회의에 나타납니다. 욥의 성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 1장에서 천상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대한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각료 회의에서 하나님은 참된 선지자를 초대하여 그 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석에 앉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듣고, 그의 사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결정된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명령하셨다. 내 말은, 이것은 꽤 대담한 발언이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알렸을 때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는 이유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심판이 없을 때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당신이 왜 나를 믿을 수 있는지 아세요? 천국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나는 회의에 참석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하시고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셨는지 들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 하나님의 의도를 알리기 위해 그 모임의 회의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모든 일이 잘될 것이며 오직 평화만 있을 뿐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너희에게 전하던 그 선지자들은 서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나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명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대신에 단지 자신들의 마음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것에 대해 단지 자신의 논평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망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 회의에 참석했고 그분의 사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성한 회의와 이 모든 것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회의에서 선지자의 역할에 대한 또 다른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선지자의 메시지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서로 동맹을 맺었는데, 문제는 여호사밧이 그 동맹에 있어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부터 메시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뿔이 달린 투구를 쓰고 돌아다니면서 성벽을 들이받으며 아합과 여호사밧이 그들의 적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일이 잘 될 거라고 말하는 대규모의 선지자 그룹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기에는 여호와와 선지자가 없느냐? 그리고 Ahab은 말합니다. 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미가야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 좋은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를 싫어해요. 그를 데려오자. 그리고 미가야는 매우 냉소적인 태도로 아합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말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아합은 비꼬는 말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좋아요, 미가야, 당신이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세요. 그리고 미가야는 내가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신성한 의회에 있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이 그 공의회 의장으로 서서 그 사자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가서 내 사자가 되어 아합을 속여 전쟁에 나가게 하리라 내가 작정하였음이니 그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의 배도를 저질러 그를 죽였느니라. 그리고 미가야는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가서 이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말하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선지자들로부터 나오는 거짓 약속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속이려고 보낸 이 천사의 미혹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가, 아니면 속이시는가? 그러나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불신앙으로 벌하신다는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가 믿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합이 진리를 계속해서 들었지만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합이 믿도록 미혹의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분명한 생각이 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하늘 모임에 있어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뜻하신 것을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너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느니라. 좋아요? 예레미야는 설교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 22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예레미야처럼 여호와의 뜻을 따랐더라면 그들이 내 말을 내 백성에게 전하여 돌이켰을 것입니다.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십시오.

그들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고에 대한 이 생각, 이 이미지, 이 그림,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고에 접근하는 것은 성경의 영감에 관한 신약성서의 가르침을 매우 강력하게 확증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이 책 전체를 통해 예레미야의 말과 주님의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거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말하는 신학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신학과 맞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사람의 뜻에서 나거나 자기 생각으로 시작한 말씀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대로 말하였으니 그것이 다르다는 베드로후서 1장의

확증입니다. 그 결과 16절부터 22절까지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약속하는 선지자들을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설명하는 단어는 셰커(sheker)입니다. 거짓말이야. 33절부터 40절까지, 우리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다시 말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항상 눈에 띄고 흥미를 유발합니다.

33절에 보면, 이 백성 중 한 사람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너희에게 여호와의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예언적 메시지는 종종 부담, 마사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꼭 가지고 다녀야 할 무언가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나 백성들이 여호와의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묻자 예레미야는 그들 곧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너는 짐이니 내가 너를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 중 하나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을 벌하리라. 그래서 그 부담은 선지자들 자신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칠십인역을 읽으면서 주님의 부담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돌아서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짐이니라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책의 후반부로 이동하면서 일부 계층에서 예레미야가 셰커의 선지자 중 한 명과 상호 작용한 실제 살아있는 예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7~28장에는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들어와서 멩에를 메고 이 나무 멩에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짐과 무게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바벨론에 정복하고 속박하게 하실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멩에를 벗겨 땅에 부수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우리의 속박을 파하시리라 하고 여호와와 성전의 빼앗겼던 모든 기구를 이년 안에 도로 찾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를.

국민들은 이 투쟁에 다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꿈이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더 가능성이 높은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언약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목에 올라미가 조여지는 것을 볼 때 주의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진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구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예레미야의 청중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3장에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참선지자와 거짓선지자의 차이점은 참선지자는 주님의 권고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니다. 반면에 평화를 약속하는 선지자들, 하나님과 같이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은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본 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져오실 멸망에 직면하게 될 때 궁극적으로 그 약속의 공허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현대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면, 거짓 가르침과 거짓 예언의 문제가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약과 베드로후서, 유다서의 말씀은 초대교회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가 문제였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것은 예레미야의 참된 메시지와 그 당시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를 비교하면서 거짓 가르침에는 흔히 인기 있는 말을 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갈등으로부터 지켜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편협하고 편협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을 막아줍니다. 때때로 선지자의 임무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 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구절이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그 문화를 대면하기보다는 우리 주변 문화의 지배적인 관념을 단순히 검증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냐가 살아 있었다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많은 팔로워가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설교했기 때문에 거대 교회를 감리한 매우 인기 있는 텔레비전 설교자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때때로 거짓 예언의 위험은 특히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더 이상 건전한 교훈을 용납하지 않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귀를 간지럽히거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선생님만을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죄성을 입증하는 교사를 찾을 것입니다.

하나냐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냐와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직면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가도록 허용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거짓 예언은 변영 신학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이 고통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강하고 성공하며 번영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 청중을 모으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의 물질주의적인 미국 문화와 정통 기독교 신앙의 혼합주의로 이어지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변영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에 의해 신으로 변한 이 부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거짓 예언과 편안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포스트모더니즘에 너무 빠져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들은 성경의 도덕적 절대성을 믿을 정도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레미야 시대에 평화의 선지자들이 했던 일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성공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서 복음의 긍정적인 측면, 하나님의 진노를 배제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복음이 교회를 위해 요구하는 것을 강조할 때 우리는 이것에 이끌립니다. 우리에게 장소. 오늘날 죄에 대한 속죄를 요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은 아동 학대처럼 들립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자. 십자가와 속죄가 무엇인지 바꿔봅시다.

영원한 형벌의 교리는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수정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 당시 한나와 나와 평화의 선지자들이 하고 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되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배적인 문화 사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낙태나 동성애와 같은 윤리적 문제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기에는 너무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문화를 바꾸는 데 집중합시다.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이 모든 불편한 교리와 신학적 진리에 대해 왜 고민합니까? 하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당신이 믿는 것이 궁극적으로 당신이 옳은 일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유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윤리가 교리보다 먼저 시작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리는 윤리를 낳는다. 따라서 여러 면에서 거짓 가르침과 인기 있는 것, 문화가 믿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현실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유혹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느꼈던 위험과 투쟁은 하나님의 참된 대변인과 거짓된 대변인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기억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언약의 대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상기시키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들에게 부여하신 책임도 상기시켜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은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만큼 우리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레미야와 거짓 교사들 사이의 투쟁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이 그의 사역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지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거짓선지자 18회입니다.